

##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과 착용감 비교

이영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A Comparison of the Clothing Behavior and Wearing Sensation of Early Elderly Women between Korea and USA

Young Ju Lee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assess and understand current needs and wearing sensation, including clothing behavior for early elderly women in the Korea and US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5 and 173 early elderly women in the Korea and USA. This research was done by a survey method and chi-square test.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arly elderly women of Korea utilize mostly human information as information source when purchasing clothing, whereas those of USA mostly media information. The women of Korea were found to put most emphasis in esthetic aspects of clothing, whereas those of USA in comfort. The most frequently worn clothes by the early elderly women of Korea were jumper, T-shirt and slacks, whereas jacket, sweater and slacks by those of USA. As for skirt, flare skirt was highly preferred in Korea, whereas A-line skirt in USA. Second, regarding the wearing sensation of ready-made clothing, the wearing sensation of jacket was found to be worst on the shoulder in Korea, whereas on the waist in USA. And the early elderly women of both Korea and USA had poor wearing sensations due to the length of sleeve, of trouser, of skirt and of one-piece dress. The comparison of the clothing behavior and wearing sensation of the early elderly women between Korea and USA showed a greater difference in clothing behavior than in wearing sensation.

**Key words:** clothing behavior, wearing sensation, early elderly women, Korea, USA

## 1. 서 론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들이 2007년을 기준으로 60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고령자 통계(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8%가 되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 되는 37.3%의 '초고령 사회'가 되어 은퇴이후 인생의 4분의 1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노년기가 길어지게 됨에 따라 어떻게 노년기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가 노년 준비 단계와 노년 초기 단계인 50대와 60대여성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노인복 시장은 의복 수명이 길고 추구하는 패션의 정도가 낮으며 사회 활동이나 외출의 기회가 적어 의복 활용 및 구매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일생에서 노년기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최근 백화점에서는 상품과 문화 센터를 결합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신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 비중과 관련 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디지털 실버족", 2010).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소비계층이 될 노인소비자를 위한 의복생산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의 생각과 감각, 체형변화 등을 고려한 디자인과 패턴, 마케팅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정(1996)은 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에서 노인들의 만족한 의생활은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로 삶에 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정희(1996)는 노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관습은 구매동기, 정보수집, 동반구매자, 구매장소, 구매 후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집단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노인복 시장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윤자, 김인숙(1998)은 노인여성의 의복구매기준은 디자인과 색을 가장 중요시하며 친구, 가족 등의 인

Corresponding author; Young Ju Lee

Tel. +82-51-663-4667, Fax. +82-51-623-5248

E-mail: young99@ks.ac.kr

적 정보원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김용숙(2000)은 노인들은 의복구매를 위한 상점 선택 시 편의성을 중시하고 주로 재래시장에서 의복을 구입하는 경제성 및 실용성 추구집단이 제일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인숙(2006)은 노년 여성들은 바지, 재킷, 니트류, 블라우스, 스커트의 순으로 의복을 구입하고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의복의 맞춤새를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 노인복의 맞춤새를 위하여 의복의 전체길이, 바지길이, 소매길이, 허리둘레, 배둘레 부위의 사이즈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점해, 이영주(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의복 구매 시 가격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사이즈로 나타났으며 70세 미만이 70세 이상에 비해 색상이나 무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전문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지는 허리와 허벅지에 여유가 많고 바지길이가 밑위길이가 길어서 불편하며, 재킷과 점퍼의 소매길이가 긴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노인복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복 시장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중년 후기에 해당하는 50대와 60대 초반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적합한 노인복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노년기의 시작시점으로 실질적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는 지식정보산업사회로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다른 문화권과의 통신편매나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 문화권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마케팅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복에 대한 태도나 구매행동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국과 미국의 20대와 40대 여성들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임숙자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에서 문화보편적 현상과 문화고유적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30년이면 노인 비율이 20.2%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연진, 2005). 미국은 한국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 노인들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노년생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지연령이 대단히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야마사키신지, 2005). 그러므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관련 산업이 한국에 비해 발달해 있으며 노인복 시장규모가 큰 미국과 한국 노인여성들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의복행동과 착용감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여성들의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인복 시장개발을 위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과 미국 노인여성들의 의복행동과 기성복 착용감 등의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두 나라 간의 비

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실, 이선재(2008)에 의하면 60대는 최대 30년까지 실제 연령보다 젊게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심리적으로 젊은 모습의 자아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큰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65세에서 70세까지의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의복행동과 기성복 착용감을 비교 연구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1.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을 비교한다.

연구내용2.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비교한다.

연구내용3.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기성복 착용감을 비교한다.

### 2.2. 조사방법

#### 2.2.1. 측정도구

설문지는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의복행동, 기성복 착용감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결혼상태, 직업을 가진 경험 유무, 현재 하는 일, 여가활동은 신체활동, 사회활동, 취미활동, 문화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의복행동은 크게 의복구매행동, 기성복 착용실태, 선호 형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의복구매행동은 의복구매 시 활용되는 정보원, 유행에 따르는 정도, 의복구매시 선택 기준, 1년 동안의 의복 구매 정도를 알아보았다. 기성복 착용실태는 겹옷, 상의, 하의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선호 형태는 재킷, 바지, 스커트, 원피스드레스의 선호 형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성복 착용감은 재킷, 바지, 스커트, 원피스드레스에 대한 부위별 착용감을 조사하였다.

#### 2.2.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뉴욕, 로드아일랜드, 보스턴에 거주하는 65세에서 70세까지의 미국 여성 173명과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미국에서는 면접법과 우편에 의한 설문지 회수방법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위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에서 70세까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은 2008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3회에 걸친 예비조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먼저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된 설문지를 한

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노인 여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2009년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였다.

면접 중 무응답 항목은 '무응답' 처리하였으므로 설문지 항목에 따라 빈도에 차이가 있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7.0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한국과 미국의 65세에서 70세까지 노년 초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한국 노인들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외출이나 사회활동 비율이 낮아 의복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일과 여가활동은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결혼상태, 직업을 가진 경험 유무, 현재하고 있는 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가활동에서는 사회활동을 제외한 신체활동, 취미활동, 문화활동에서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혼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사별이 74.2%와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이혼과 결혼한 적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경험 유무는 한국은 67.4%가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미국은 90.1%가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시사하며, 한국도 점차적으로 직업을 가졌다가 퇴직하는 노인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하는 일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종일 근무하는 비율은 2.3%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노년 초기 여성들이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되어있지

Table 1.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 비교

		빈도(%)		$\chi^2$
		한국	미국	
결혼상태	남편과 함께 거주	31(23.5)	61(35.3)	14.12**
	이혼	3(2.3)	11(6.4)	
	사별	98(74.2)	96(55.5)	
	결혼한 적 없음	0(0)	5(2.9)	
	계	132(100)	173(100)	
직업을 가진 경험	있다	91(67.4)	155(90.1)	24.50***
	없다	44(32.6)	17(9.9)	
	계	135(100)	172(100)	
현재 하는 일	종일 근무	3(2.3)	8(4.7)	51.56***
	반나절 근무	27(20.3)	14(8.2)	
	봉사활동	3(2.3)	41(24.0)	
	단체나 협회활동	9(6.8)	34(19.9)	
	일하지 않음	91(68.4)	74(43.3)	
계	133(100)	171(100)		

\*\*p<0.01, \*\*\*p<0.001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가 68.4%와 43.4%로 가장 높았으나 한국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봉사활동과 단체나 협회활동이 24%와 19.9%로 높게 나타나 한국의 2.3%와 6.8%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어 한국 노인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 봉사활동이나 단체와 협회활동, 재취업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 중 신체활동에서는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걷기와 체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은 체조와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노인 여성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활동은 한국과 미국 모두 클럽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을 한다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취미활동에서는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취미활동이 없다고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육아와 가정일로 자신에게 투자할

Table 2.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여가활동 비교 빈도(%)

여가활동	항목	한국	미국	$\chi^2$
신체 활동	걷기	37(27.6)	13(7.5)	69.48***
	체조	37(27.6)	52(29.9)	
	자전거 타기	7(5.2)	37(21.3)	
	수영	1(0.7)	1(0.6)	
	정원관리	2(1.5)	18(10.3)	
	집안 청소	26(19.4)	15(8.6)	
	쇼핑	20(14.9)	16(9.2)	
	운전	2(1.5)	10(5.7)	
	골프	2(1.5)	8(4.6)	
	기타(없다)	2(1.5)	4(2.3)	
계	134(100)	174(100)		
사회 활동	클럽활동 (노인대학)	60(44.8)	60(34.7)	3.26
	종교생활	37(27.6)	58(33.5)	
	기타(없다)	37(27.6)	55(31.8)	
	계	134(100)	173(100)	
취미 활동	독서	8(6.0)	107(61.5)	148.19***
	여행	5(3.8)	22(12.6)	
	사교댄스	4(3.0)	11(6.3)	
	운동	19(14.3)	7(4.0)	
	창작활동	26(19.5)	16(9.2)	
	기타(없다)	71(53.4)	11(6.3)	
	계	174(100)	133(100)	
문화 활동	연극관람	1(0.7)	34(19.5)	159.15***
	영화관람	4(3.0)	61(35.1)	
	콘서트 관람	2(1.5)	22(12.6)	
	박물관 견학	2(1.5)	16(9.2)	
	전시회	3(2.2)	4(2.3)	
	강연	32(23.9)	7(4.0)	
	기타(없다)	92(68.7)	30(17.2)	
계	133(100)	174(100)		

\*\*\*p<0.001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노인기로 접어들면서 50% 이상이 배우자의 사망과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길어진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독서는 미국 노인의 취미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61.5%의 비율을 나타냈으나 한국에서는 6%에 불과해 큰 차이를 나타내어 한국 노인들의 독서량이 미국에 비해 아주 적음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에서는 한국은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다가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 노년 초기여성들은 영화관람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활동에서 미국은 영화관람, 영국관람, 콘서트관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한국은 강연 외 다른 문화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

3.2.1.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에서는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복구매 시 정보원으로 미국은 잡지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텔레비전과 신문의 비율도 26.6%와 20.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친구가 55.6%로 가장 높고 다음은 텔레비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성복 구매 시 정보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잡지는 한국에서는 1.9%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미국 노인 여성들은 기성복 구매를 위한 정보를 잡지, 텔레비전,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많이 얻는 반면 한국 노인들은 친구 등을 통한 인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의 교육과 경제적 수준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진 한국의 예비 노인세대의 매체 활용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노인복 마케팅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을 따르는 정도는 미국은 '따르는 편이다, 따르지 않는 편이다, 매우 따르는 편이다' 순이었으나 한국은 '따르는 편이다, 따르지 않는 편이다, 전혀 따르지 않는다'의 순서로 나타나 유행을 전혀 따르지 않는 비율은 한국이 높았고, 매우 따르는 편이다의 비율은 미국이 높게 나타났다. 즉 두 나라의 노인들 중 유행을 따르는 비율이 50%를 넘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복과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복구매 시 선택기준은 미국은 편안함과 맞춤새가 41.3%와 34.9%로 높게 나타나 기성복 맞춤새와 편안함이 의복구매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색깔과 문양 등 미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적인 면이 7.6%인 미국과 큰 차이를 보

였는데 한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이 미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에 비해 의복을 구매할 때 실용적인 면보다 외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20대와 40대 여성 소비자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임숙자 외(2003)의 연구에서 정장과 캐주얼 의복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연령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만 디자인과 색상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임숙자 외(2003)의 연구에서 미국의 20대 여성들은 의복 구매 시 착용감과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초기 노년 여성은 착용감 즉 맞춤새와 편안함은 중요하게 생각하나 가격은 20대와 달리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의복 구매정도는 미국과 한국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금 구매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매우 많이 구매한다가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가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3.2.2. 기성복 착용실태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기성복 착용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겉옷,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겉옷에서 가장 큰 차이가

Table 3.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 의복구매행동 비교

의복 구매행동		한국	미국	빈도(%) $\chi^2$
정보원	잡지	2(1.9)	60(42.0)	102.19***
	신문	2(1.9)	29(20.3)	
	텔레비전	43(39.8)	38(26.6)	
	인터넷	1(0.9)	1(0.7)	
	친구	60(55.6)	15(10.5)	
계		108(100)	143(100)	
유행을 따르는 정도	매우 따르는 편이다	12(9.0)	28(16.4)	9.47*
	따르는 편이다	62(46.3)	75(43.9)	
	따르지 않는 편이다	35(26.1)	53(31.0)	
	전혀 따르지 않는다	25(18.7)	15(8.8)	
	계	134(100)	171(100)	
구매시 선택 기준	맞음새	15(11.2)	60(34.9)	73.74***
	편안함	47(35.1)	71(41.3)	
	색깔,문양등 미적인면	63(47.0)	13(7.6)	
	기능성	1(0.7)	7(4.1)	
	품질	4(3.0)	17(9.9)	
가격	4(3.0)	4(2.3)		
계		134(100)	172(100)	
1년 의복 구매 정도	매우 많이 구매	7(5.2)	38(22.1)	35.78***
	보통	56(41.5)	81(47.1)	
	조금 구매	53(39.3)	51(29.7)	
	전혀 구매하지 않음	19(14.1)	2(1.2)	
계		135(100)	172(100)	

\* p<0.05, \*\*\*p<0.001

나타났다. 미국 여성들은 재킷 착용 비율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 여성들은 점퍼(파커) 착용 비율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었다. 점퍼는 미국의 경우 착용률이 1.8%에 불과해 겉옷으로의 점퍼 착용률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노인 여성들은 미국 노인들에 비해 사회활동이나 외출 기회가 적으므로 정장 스타일에 가까운 재킷 보다는 몸에 여유가 있어 편안한 점퍼를 착용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노인 여성들도 사회활동이나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의 체형변화를 반영하여 기능적이면서 편안한 노인 여성들을 위한 정장 스타일의 점퍼나 재킷디자이너 필요하다. 상의는 미국은 스웨터가 51.8%로 착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티셔츠 착용률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의는 겉옷과 상의에 비해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는데 두 나라 모두 바지의 착용률이 스커트의 착용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바지는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하의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 여성들은 체형변화로 인한 다리의 휘어짐과 피부 노화현상, 하지정맥 등에 의한 혈관 돌출 등으로 인해 다리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스커트에 비해 기능적인 바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청바지 착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스커트는 한국이 미국보다는 착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2.3. 선호 형태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의 선호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재킷, 바지, 스커트, 원피스드레스의 선호 형태에서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테일러드 칼라 형태의 재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Table 4.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기성복 착용실태 비교 빈도(%)

아이템	한국	미국	$\chi^2$	
겉 옷	코트	16(11.9)	40(23.5)	93.57***
	재킷	36(26.9)	97(57.1)	
	버버리(비옷)	5(3.7)	4(2.4)	
	점퍼(파커)	63(47.0)	3(1.8)	
	카디건	14(10.4)	26(15.3)	
계	134(100)	170(100)		
상 의	스웨터	15(11.9)	88(51.8)	67.84***
	셔츠	21(15.6)	27(15.9)	
	블라우스	43(31.9)	38(22.4)	
	티셔츠	55(40.7)	17(10.0)	
계	135(100)	170(100)		
하 의	원피스	3(2.2)	4(2.4)	11.22*
	바지	118(87.4)	150(88.8)	
	청바지	1(0.7)	10(5.9)	
	스커트	13(9.6)	5(3.0)	
계	135(100)	169(100)		

\* p<0.05, \*\*\*p<0.001

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은 짧은 길이의 재킷, 카디건 형태, 사파리 형태 등 다양한 형태에서 선호도를 보였으나 미국의 경우 테일러드 칼라 형태 재킷, 카디건 형태 재킷을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아주 낮게 나타나 재킷의 선호형태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지는 두 나라 모두 캐주얼한 형태의 바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장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9.2%의 선호도를 보인 치마바지의 경우 미국에서는 1.2%의 선호도를 보여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미국에서 6.5%와 5.9%의 선호도를 보인 몸에 붙는 바지와 청바지는 한국에서는 1.6%, 0.8%의 아주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노인 여성들은 몸에 붙는 바지는 변화된 체형이 너무 들어나고, 청바지는 젊은이들이 입을 옷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젊은 시절 청바지를 즐겨 착용하였던 세대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의복의 캐주얼화 경향과 청바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청바지 착용비율이 미국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화된 노인들의 체형을 반영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청바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커트는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의 선호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아이템으로 한국 여성들은 플레어스커트를 53.4%로 가장 선호

Table 5.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선호 형태 비교 빈도(%)

아이템	형태	한국	미국	$\chi^2$
재킷	카디건재킷	15(11.5)	56(32.7)	50.93***
	테일러드 칼라재킷	64(48.8)	100(58.5)	
	사파리재킷	16(12.2)	9(5.3)	
	짧은 길이재킷	33(25.2)	5(2.9)	
	키모노재킷	3(2.3)	1(0.6)	
	계	131(100)	171(100)	
바지	치마바지	12(9.2)	2(1.2)	20.00***
	정장바지	31(23.8)	35(20.6)	
	캐주얼바지	84(64.6)	112(65.8)	
	몸에 붙는 바지	2(1.6)	11(6.5)	
	청바지	1(0.8)	10(5.9)	
계	130(100)	170(100)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4(3.1)	55(34.2)	108.97***
	A라인 스커트	14(10.7)	56(34.8)	
	주름 스커트	26(19.8)	17(10.5)	
	랩 스커트	9(6.9)	15(9.3)	
	플레어 스커트	70(53.4)	17(10.6)	
	치마바지 스커트	8(6.1)	1(0.6)	
계	131(100)	161(100)		
원피스 드레스	박스 원피스	7(6.5)	14(9.1)	16.08**
	타이트 원피스	4(3.7)	18(11.6)	
	A라인 원피스	23(21.3)	21(13.5)	
	셔츠 원피스	49(45.4)	40(25.8)	
	랩 원피스	18(16.6)	42(27.1)	
	점퍼스커트 원피스	7( 6.5)	20(12.9)	
계	108(100)	155(100)		

\* p<0.05, \*\*\*p<0.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은 A라인 스커트와 타이트스커트가 34.8%와 34.2%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A라인 스커트와 타이트스커트는 한국에서는 10.7%와 3.1%의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궁민지(2008)의 연구 결과와는 조금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남궁민지(2008)의 연구에 의하면 50대에서 70대까지의 시니어들은 A라인 스커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시니어 패션디자인의 특성분석에서는 주로 플레어스커트와 주름스커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arol(1999)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55세 이상 여성들은 스트레이트 스커트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이 A라인 스커트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Spruiell and Jernigan(1982)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65세 이상 여성들은 A라인 스커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드레스는 한국은 셔츠형태 원피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랩원피스와 셔츠원피스가 27.1%, 25.8%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1.6%의 선호도를 보인 타이트 원피스는 한국에서는 3.7%의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은 여유가 있는 스커트와 원피스형태를 선호하고 미국은 한국 여성들에 비해 조금 붙는 형태를 선호하며 한국 노인 여성들이 미국 노인 여성들에 비해 정장 형태 보다는 편안하며 여유가 있는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3.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기성복 착용감

기성복 착용감에서는 스커트를 제외하고 모두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킷의 착용감에서는 미국은 허리, 소매길이, 가슴 순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진동둘레, 소매길이, 가슴 순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arline(1994)에 의하면 55세 이상 미국 여성들은 의복의 착용감이 가장 떨어지는 부위가 허리와 소매길이라고 하였으며 허리는 지방의 침착으로 너무 타이트하며 소매길이는 길어서 착용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점해, 이영주(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60대 여성들은 허리는 알맞거나 조금 헐렁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과 미국 60대 여성의 체형적 차이도 있겠지만 남궁민지(2008)의 연구에서 한국의 시니어 재킷디자인은 허리에 넉넉한 여유분량을 두는 특징이 있다고 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는 미국은 바지길이, 허리, 엉덩이의 순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바지길이, 밑위, 배의 순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드레스의 착용감은 미국은 원피스드레스의 길이, 허리, 가슴 순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허리, 원피스드레스 길이의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 소매길이, 바지길이, 스커트길이, 원피스드레스길이에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 패턴설계 시 길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기성복 착용감 비교

아이템	부위	한국	미국	빈도(%)	$\chi^2$
재킷	목둘레	5(4.7)	15(8.8)		54.70***
	어깨	40(9.3)	7(4.1)		
	가슴	16(15.0)	30(17.6)		
	진동둘레	25(23.4)	8(4.7)		
	허리	5(4.7)	47(27.6)		
	등	14(13.0)	4(2.4)		
	재킷길이	10( 9.3)	21(12.4)		
소매길이	22(20.6)	38(22.4)			
계		107(100)	170(100)		
바지	허리	19(17.4)	40(23.3)		26.50***
	배	20(18.3)	17(9.9)		
	밑위	22(20.2)	11(6.4)		
	엉덩이	10(9.2)	25(14.5)		
	둔부	3(2.8)	18(10.5)		
	허벅지	1(0.9)	10(5.8)		
	바지길이	34(31.2)	51(29.7)		
계		109(100)	172(100)		
스커트	허리	17(20.7)	44(26.8)		1.85
	배	15(18.3)	33(20.1)		
	엉덩이	10(12.2)	21(12.8)		
	스커트길이	40(48.8)	66(40.2)		
계		109(100)	172(100)		
원피스드레스	목둘레	4(5.7)	22(13.6)		33.18***
	어깨	2(2.9)	11(6.8)		
	가슴	6(8.6)	28(17.3)		
	진동둘레	7(10.0)	3(1.9)		
	허리	25(35.7)	31(19.1)		
	엉덩이	2(2.9)	15(9.3)		
	등	3(4.3)	3(0.6)		
	소매길이	2(2.9)	13(8.0)		
원피스드레스길이	19(27.1)	36(22.2)			
계		67(100)	162(100)		

\*\*\*p<0.001

4. 결 론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과 착용감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의복구매 시 정보원으로 인적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미국 여성들은 매체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노인들은 미국의 노인들처럼 잡지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 보다 친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착용한 옷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의복 구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에게는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노년 초기 여성들이 유행을 따르는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나 노년 초기 여성들도 유행에 민감한 연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노인들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유행경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유행경향을 반영한 노인복을 생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복구매 시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색이나 문양 등의 미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하나 미국 여성들은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이 미국 노인들에 비해 미적인 면에 더욱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은 무조건 기능적이고 편안함만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짧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과 색을 사용한 기능적 의복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은 점퍼와 티셔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나 미국은 재킷과 스웨터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로는 양국 모두 바지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재킷형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테일러드 칼라 재킷형태였으나 한국 노년 초기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는 모두 캐주얼한 형태를 선호하였다. 선호형태에서 다른 아이템에 비해 두 나라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스커트는 한국은 플레어스커트, 미국은 A라인 스커트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드레스는 한국은 셔츠형원피스, 미국은 랩과 셔츠 원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 노인 여성들이 미국에 비해 정장 형태보다는 여유가 있으며 편안한 형태의 의복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성복 착용감에서 재킷은 한국은 어깨, 미국은 허리에서 착용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의 노년 초기 여성들은 소매길이, 바지길이, 스커트길이, 원피스길이에서 착용감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노인복 설계 시 획적인 요소보다 종적인 요소에 대한 배려와 사이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기성복 착용감을 비교해 본 결과 착용감에 비해 의복행동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나라간의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글로벌한 노년기 여성복 마케팅 전략 수립 위해서는 문화권에 따른 의복행동 특성을 연구한 후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사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시기에 실시되지 않아 유행에 민감한 의복의 선호 형태나 착용실태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노년 초기 여성들로 한정하여 한국과 미국 노인 여성들을 비교하였으므로 후속적으로 노인 중기와 후기 여성들의 의복행동과 착용감에는 두 나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 김연건. (2005). 2006년 일본 시장 트렌드와 전망 : 2005년도 日經 히트상품 분석을 바탕으로. Kotra, p.15.
- 김용숙. (2000). 노년기 여성의 의복구매행태에 따른 시장 세분화. 복식, 50(8), 99-111.
- 김인숙. (2006). 지역과 소득에 따른 노년 여성의 의복구매행동 및 맞음새 선호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점해, 이영주. (2007).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기성복 맞음새.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23-135.
- 김정실, 이선재. (2008). 뉴실버 여성 소비자의 지각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쇼핑성향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32(11), 1729-1738.
- 남궁민지. (2008). 시니어 패션디자인 분석 및 선호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윤자, 김인숙. (1998). 한국 노인여성들의 의복구매행동과 의복불만. 복식문화연구, 6(4), 162-174.
- 박정희. (1996). 노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관한 연구-의복구매관습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자, 양윤, 이승희, 안춘순, Sharon, J. Lennon. (2003).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7(3/4), 268-297.
- 이민정. (1996). 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야마사키신지. (2005). 시니어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일본포럼, p. 64.
- 고령자 통계. (2007, 10). 통계청. 자료검색일 2009, 9. 10. 자료 출처 <http://www.kostat.go.kr>
- 디지털 실버족, 인터넷쇼핑 '전면부상'. (2010, 4. 22). 지드넷 코리아 자료검색일 2010, 2. 22. 자료출처 <http://www.zdnet.co.kr>
- Earlin, Rainer-Jeanes. (1994). Clothing interest, leisure activity continuity and their association to clothing fit satisfaction for women 55years and o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Karol, E. B. (1999). Determining apparel style preferences of older women and the age of which these preference are develop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 Spruiell, P., Jernigan, M. (1982). Clothing preferences of older women: Implication for gerontology and the American clothing Industry. Educated Gerontology, 8, 485-492.

(2010년 7월 26일 접수/2010년 8월 26일 1차 수정/2010년 9월 15일 게재확정)